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송재소



중국 송나라의 유염(俞琰)이 쓴 '서재야화(書齋夜話)'에 이런 대목이 있다. 이름을 여찌 하필 돌에다 새기는가 有名何必鑿石

길 가는 사람 입이 비(碑)와 같은데 路上行人口似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행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 한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돌에다 이름을 새기는 것인데 이것이 비석이다. 그러나 돌에 새긴 글은 세월이 지나면 마멸된다. 돌에 새기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른바 '구비(口碑)'이다. 즉 돌에 새긴 비가 아니라 입으로 전해지는 비(碑)라는 뜻이다. 그러나 '석비(石碑)'보다 '구비'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동양 특히 한자문화권 국가에서는 사람

들의 명예욕 때문에 자고로 수많은 비석이 세워졌다. 이 중에는 죽은 후에 진심으로 그 사람의 덕망을 추모해서 후인들이 세운 비석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자

신의 행적을 과시하기 위하여 스스로 세운 비석도 적지 않다. 가장 흔한 것이 선정비(善政碑)이다. 이런 비석에는 돌에 새겨진 크고 작은 선정비를 길가에서 구경할 수 있는데 그 고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전임 사또의 감압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지난 달 서울의 동작문화원 앞에 세워진 전임 동작구청장의 공덕비가 세인의

車運載來長安  
석공은 갈고 쪼아 무엇에 쓰려는가 工人磨琢欲何用  
돌은 말을 못하니 내가 대신 말하노라 石不能言我代言  
무덤 앞 신도비(神道碑)는 되고 싶지 않으니 不願作人家墓前神道碑  
봉분 흙 마르기도 전, 그 이름 잊혀지리 墳土未乾名已滅  
관청 앞길 덕정비(德政碑)도 되고 싶지 않으니 不願作官家道傍德政碑  
실제 사실 안 새기고 헛된 말만 새기는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이런 유쾌하지 못한 기억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선정비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명종 때 합천군수를 지낸 이증영(李增榮)이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고을 사람 주이(周怡)가 다음과 같은 송별시를 지었다고 한다. 주이는 주세봉(周世鵬)의 증손자이다.

만사람 입이 비(碑)인데 돌을 여찌 쓰리요 萬口是碑安用石  
말 한 마디가 전별금이지 돈을 꼭히 줄 것 없네 一言爲別金無用  
선정을 베풀고 떠나는 이증영을 위해서 굳이 비석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고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여 '구비(口碑)'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을 사람들은 후일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를 기리는 선정비를 세웠다. 그가 죽기 4년 전이다. 지금도 합천군에는 이 선정비가 남아있는데 언젠가는 마멸되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증영의 '구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균관대 명예교수·전통문화연구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구비(口碑)

결 不鑄實錄錄虛辭  
이 '덕정비'가 선정비이다. 지금도 지방에 가면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등이 새겨진 크고 작은 선정비를 길가에서 구경할 수 있는데 그 고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전임 사또의 감압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지난 달 서울의 동작문화원 앞에 세워진 전임 동작구청장의 공덕비가 세인의

## 시설

### MB정부 언제까지 '균형발전' 외면할건가

청와대가 지난 7일 대통령실 직조를 개편하면서 지방관련 정책을 다뤘던 국정기획수석실을 폐지키로 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담당이었던 지역발전비서관이 수석과 비서관 사이 직급인 정책지원관 아래 비서관으로 조정돼 위상 약화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동안 지역발전비서관이 자리는 그 명칭에 걸맞지 않게 지역발전 정책의 기획과 조율에 대단히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 위상까지 약화돼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정부 부처 및 혁신도시 이전 등 산적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

나주시 등 혁신도시들이 합병대상 공기업의 이전지역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국토해양부 등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한전은 나주로, 한수원은 경주로 각각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통합이 거론되면서 양 지역간에 치열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지역간 갈등을 조정할 대안 마련이나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대강기관의 이전 방침만 밝히고 있을 뿐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입주역시 소극적인 수밖에 없다. 일부 기관들이 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건물 신축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정부가 모호한 태도로 마냥 시간을 끄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시간을 끌수록 부작용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예정이다. 더 이상 혼란과 경제·사회적 비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는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농어촌공, 대촌천 상습 범람 책임져야

농어촌공사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간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보(淤)가 매년 장마때마다 범람해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반복되고 있는데도 이를 '나 몰라라'며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가 결코 빈말이 아닌 듯싶다.

광주시 남구 신장동과 나주시 남평읍 일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대촌천에 설치된 '신장보'가 장마 때마다 범람해 인근 논밭이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지난 11일에도 장맛비로 인해 불어난 대촌천이 넘쳐 농경지와 비닐 하우스 50ha가 침수됐다. 이날 침수 피해는 길이 30m, 높이 3m, 폭 2m의 신장보가 갑자기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급류해 발생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8월에도 똑같은 침수피해를 입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신장보의 관리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이 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신장보의 안내 팻말에는 5개월 전 다른 곳으로 발령난 직원이 관리담당자로 지정돼 있는가 하면 마을 담당자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신장보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망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수문 크기 확대 등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농어촌공사 관계자의 말은 어가 없다. 지난해에도 피해가 있었는데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다 또다시 침수가 반복되고 언론사가 취재에 들어가니 그제야 검토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신장보 일대의 농경지 침수는 엄연히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농어촌공사의 탓이 크다. 따라서 농어촌공사는 침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당장 개·보수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 NGO 칼럼

정의춘



민선 5기 광주호가 '행복한 창조 도시 광주'라는 깃발을 들고 출항했다. 참여·소통의 자치공동체,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세계속의 인권·평화공동체, 행복한 생태공동체라는 비전을 담은 광주호가 힘찬 순항하기를 기대해 본다.

창조도시를 이루는 가장 기본핵심은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無形)자산을 말한다. 미국

은 전체 72개국 중 25위로 상위권이나, OECD 29개국 중에서는 하위권인 22위를 나타내 선진국보다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가 되기 위한 성공의 열쇠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영리부문 간의 상호 협력, 존중 및 호혜의 정신인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 선행과제라고 본다. 사회적 자본이 토대가 된다면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가 될 것이며, '행복한 창조 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창출

### '민선5기 광주' 힘찬 순항 기대한다

스승김대하교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렵다" 고 했다.

같은 물질·인적 자본을 갖고 있어도 구성원 간의 관계에 따라서 다른 경제적 사회적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미시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의 혁신적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해 삼삼경제연구소(2009년 9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OECD 29개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신뢰와 사회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개념 요소를 포괄적으로 평가한 사회적 자본 지수의 모형을 설정하고, 세계 72개국을 대상으로 실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를 계속할 것이다.

측정 결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

과 성공적인 실천 전략들이 세워질 것이다.

도시의 하나의 중요한 자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광주가 창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조직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서로 신뢰하고, 상호 협력하고, 배려하며 생활해 나가면 지역사회의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진다.

사회적 자본의 토대 위에 서로 신뢰하고,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는다면 혈연이나 학연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창조 도시'를 이룰 수 있으며, 시민참여형 민주적 지방정부의 모델이 될 것이다. 신뢰의 문화 속에서 풍부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이 가능한 광주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광주YMCA 시민운동팀장〉

## 기고

안명원



강운대 광주시장의 민선 5기가 시작됐다. 강 시장은 시정의 화두를 시민의 행복에 두고 행복지수를 강조하고 있다. 행정에 능통한 그가 문화시장이면서 문화수도의 확실한 토대를 마련하리라 기대한다.

취임하자마자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몇 가지 유념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밀어붙이고 있는 현 MB정권을 보듯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다양한 계층의 충분한 수렴으로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한다. 잘 한 것은

양해야 하고 노면전자 도입 또한 근거 없는 정부지원 등이 문제고 보면 분담률에 비해 많은 예산과 적자운행을 피할 수 없다 해도 지나가 최상책이지 않을까 한다. 정착이 된 버스 노선은 보완을 하고 대수를 늘리는 편이 혼란을 피할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5기 핵심 현안으로 장기 발전의 기틀이다.

극도로 폐허화 되어 가는 구도심에 눈을 돌려야 한다. 도시들이 겪는 공통점에 다 도청과 관련기관이 줄줄이 빠져나간 동구는 특별한 케이스이다. 강

###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출발에 부쳐

승하고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은 보완하며 빛나고 사업은 과감히 포기해야 할 것이다. 8년간 부풀어져 비만이 된 조직은 건강하게 해야 한다. 방치돼 온 자치구 경계조정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동구는 재개발과 구 경계를 확대 조정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도시가 무한 경쟁사이에 앞서기려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무등산이 유형 브랜드라면 있고 있는 문화전당도 가능한 것이며 무형으로는 인권, 평화도 광주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강 시장의 세계 최초의 "민주인권, 평화도시" 구상은 좋은 발상이라 본다.

2호선 도시철도 재검토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이해가 가지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마다 필요 약으로 선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상의 경전철은 지

시장은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돌아오는 도심이 되도록 문화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진 도심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도시재생본부'도 가동한다니 적절한 시책이다.

하지만, 문화전당을 원활히 지원할 투자진흥지구(문화특구)가 표류하고 있어 걱정이다. 진흥지구는 전당이 잘 풀려가게 하는 지원 동력이며 전당 성공의 요체이다.

공약한 일자리 10만개 창출은 문화전당과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고 구도심에 공공공원을 만드는 한편 세종시 무산으로 대기업을 유치해서 안정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보다 나은 인센티브로 유치해 하위인 자립도 또한 상승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전당 주변발전협의회 회원인원〉

### 무분별한 자동차 튜닝, 교통사고 위험 높아

며칠 전 지방에서 승용차가 화재로 타버린 일이 있었는데 차에 요란한 장식은 단 게 문제였다. 차 앞쪽에는 일반 전조등보다 훨씬 밝은 할로겐등을 달고 또 차량 뒤범퍼와 번호판 주변에도 네온등과 할로겐 등을 달았다.

물론 전부 다 불법행위이지만 그보다 이런 튜닝의 경우 사고시 복잡한 전선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아주 높다는 점이다.

즉 여기저기 조명등을 달기 위해 전선들을 연결하다 보면 전선 어딘가에 파복이 벗겨져 합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고, 자칫

파괴를 일으킬 경우 즉각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전기 배선에 의한 쇼크는 파복을 태우기 때문에 이것은 뜨겁게 달구 엔진과 그 주변의 인화 물질에 순식간에 발화를 일으켜 차량화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가스차의 경우엔 더더욱 위험하다.

자동차는 처음 출고된 당시 상태로 타는 게 가장 안전하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불법 조명으로 차 앞과 사람의 목숨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동차 전선을 합부로 건드리는 튜닝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오선진·광주시 동구 서석동

###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 無等鼓

'대한민국 첫 해외원정 16강 진출' '부부젤라' '점쟁이 문어'...

12일 새벽(한국시간) 스페인의 우승과 함께 막을 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떠올리면 먼저 생각나는 말들이 있다.

1930년, 프랑스인 질 리메의 제안에 따라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으로 우루과이에서 처음 열렸던 월드컵은 이후 국가에 위성으로 방송

## 월드컵과 F1

패 시청자가 수 억명에 이르며 각종 광고와 부대수입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한다.

남아공 월드컵이 이어 지구촌 스포츠 축제의 'F1코리아 그랑프리'가 오는 10월 22~24일 영암 서킷에서 벌어진다. 이미 지구촌 잔치다. 축구 팬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이 밤을 새우며 자국 대표팀과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며 즐기는 축제다.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올림픽.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스포츠팀 222-4267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스포츠팀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